

가을 목포는 음악도시 “뮤직 플레이”



김중식 목포시장이 '목포 뮤직 플레이'를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10월 '목포 뮤직 플레이' 개최...전 국민 경연·공연·체험 등
홀수년 열리는 문학박람회와 도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목포시가 올해는 음악으로 문화관광 신상품을 선보인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갯바위문화타운에서 '2022 목포 Music Play(뮤직 플레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는 이난영 여사, 김씨스터즈, 작곡가 손석우, 남진 등 우리나라 가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중 음악인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다. 시는 이 같은 음악적 자원을 문화예술 상품, 나아가 산업과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2 목포 뮤직 플레이 개최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목포음악축제(TF)팀도 신설했다. 시는 '근대문학의 산실'로 지난해 문학을 주제로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학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2022 목포 뮤직 플레이를 통해 '대중음악의 산실', '한류음악의 출발점'이라는 위상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2022 목포 뮤직 플레이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경연, 공연, 체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 구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전문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목포 뮤직 플레이를 짝수 해에 개최해 홀수 해에 열리는 문학박람회와 함께 해마다 가을에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벼농사 규모화 사업 성과

3년간 10개 법인 1532농가 작업 대행 17억 소득 올려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 기여·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안군이 2019년 시작한 벼농사 규모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이 전국 최초로 군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고령 농가의 영농작업을 20% 절감된 수수료로 연간 50ha 이상 벼농사 위탁경작이 가능한 대규모 전업농(영농조합법인)이 대행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10개의 법인이 1532 농가의 영농

작업을 대행해 1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법인은 벼농사 규모화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를 절감해 소득증대 기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했다고 군은 평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벼농사 규모화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돼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버스 운영

27일 대마면·3일 염산면 등 설 전후 주민 대상

영광군이 설 명절 전·후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버스'를 운영한다. <사진> 이동검사버스는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기존 운행하는 행복드림버스를 동원해 혈압·당뇨를 측정하고 건강 상담 실시 및 건강꾸러미를 배부한다. 지역별 순회일정은 27일 대마면·28일 불갑면·내달 3일 염산면·4일 흥농읍·7일 군서면·8일 묘량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번 이동 선별검사 버스를 이용한 선제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암군 실내체육시설 임시휴관 2월말까지 연장

군민회관·국민체육센터 등 코로나 확진자 속출에 연장 결정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2월말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영암실내체육관, 군민회관,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및 파크골프장, 실내 게이트볼장이다. 휴관기간을 이용해 시설물 개보수,

물탱크 청소 및 수영장 여과재 교체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영암을 포함한 전남 서부권의 확

진자가 연일 이어지면서 추가 휴관을 결정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군민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휴관을 결정했다"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조기 개방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봄이 멀지 않았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겨울 한파에도 완도 상왕봉에서 황금색 꽃망울을 터트렸다. 복수초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이다. 야생화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복(福)과 장수(壽)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밤과 이른 아침에 꽃잎을 달고 있다가 일출과 함께 꽃잎을 펼친다. <완도수목원 제공>

목포해수청, 설 명절 여객선 안전 캠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해양안전 홍보물품 배포 위주로 진행된다.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등의 영상을 통한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여객선과 터미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확대

연간 14만4000원으로 올려

완도군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이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연간 9만6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4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군은 지난해 11월 관내 목욕탕 이용 요금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업소별 특성에 따라 구분해 공중 목욕장은 1매당 1000원, 일반 목욕탕은 6000원을 지원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품위유지를 통한 자존감 향상은 물론 침체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